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격상...안보·군사 협력 강화

尹 국민 방문 '다우닝가 합의' 채택 방위협력·방산 공동수출 등 합의서 인·태 중시 美와 공동 안보 공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민 방문을 계기로 유럽의 핵심 우방인 영국과 안보·군사 분야에서 협력과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영 양국은 20일(현지시간) 군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수출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 수출 MOU(양해각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등도 체결한다고 전했다.

직접적인 훈련과 작전의 공동 수행에 더해 방위 산업 협력,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까지 안보의 전방위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군사 협력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반도체 협력 MOU 체결, 그리고 한영 자유무역 협정(FTA) 개선 협상 착수를 발표한 것도 넓게 보면 안보 동맹 강화다. 반도체 공급망은 결국 대중국 견제와 맞닿아 있고 FTA는 원래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서는 경제 안보 개념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한영 양국은 사이버 안보와 방위 산업 등 안보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행보는 한·영 양국이 공히 각각 '혈맹'으로 여기는 미국과 관계에 못지않게 한·영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해 보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각에선 양국이 동맹 수준의 관계 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이런 흐름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유하고 중시하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세계 안보가 근래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미국이 중국의 팽창주의를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나선 상황에서 영국은 인·태 지역 핵심 국가인 우리나라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발발한 6.25 한국전쟁 당시 영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했으며, 이 가운데 무려 1000명이 넘는 청년이 전사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혈맹 관계인 미국 못지않게 영국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생존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한영 양국이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상호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과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에 따라 양국 관계는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우리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합의(accord) 문서 형식으로 양국 간 포괄적 관계를 격상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영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것이라는 외교적 구상이 깔려있다.

찰스 3세 국왕 또한 지난 5월 대관식 이후 첫 국민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 및 격상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에 대한 공동 의지가 포함된다.

특히 양국이 공식 문서를 통해 북핵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AI·디지털·원전·우주과학·바이오·양자 기술·해상풍력·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그간 한영 관계가 협력의 잠재력이 큼에도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작년 기준 한영 교역 규모는 유럽 국가 중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프랑스에 이은 5위 수준에 머물러있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영국을 국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총선 등판론'에 떠들썩한 여의도...여야 복잡해진 셈법

대구 이어 대전 정책 현장 방문 국힘 "총선판 바꿀 대세 차출 필요" 민주 "국정 실패 책임져야 할 사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등판론'이 급부상하면서 여야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보수 텃밭'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21일에는 대전 법무 정책 현장 방문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이 사실상 '총선 행보'를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국민의힘에선 한 장관 차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선대위원장 임명과 비례대표 앞 순번 배치, 상징적 지역구 자객 공천 등 '한동훈 사용법'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적어도 70% 정도로 출마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다 생각한다"며 "중앙선대위 공동본부장 등을 해서 최고 격전지 수도권에서의 총선 승리를 겨냥할 수 있는 역할을 한 장관에게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근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 장관의 등판이 어떤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셈법이 복잡하다. 당 주류는 한 장관이 떠난 '이준석 신당'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저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반면, 이전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한동훈-이준석 연대는 우리당의 필승카드다. 한 장관과 이전 대표는 보완제"라며 "이 전 대표는 2030 남성들의 지지가 강하게 있고, 한 장관은 2030 여성과 기존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가 있기에 시너지만 잘 이룬다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한 장관의 총선 등판이 오히려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등판론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한 장관을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에 비유하면서 "한 장관이 정치에 맞는 사람인가 생각이 든다. 멋지고 힘 있고 세긴 하지만 과연 서민과 국민들이 사는 모습에서 고통과 고난, 힘든 모습, 월세 전세,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 잘못된 국정 방향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한 장관"이라며 "국정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인기가 있다, 사인을 한다고 하느냐"고 비난했다. 최근 비례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보다) 청출어람"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기현표 슈퍼 빅텐트' 어디까지 펼쳐질까

비명계·양향자 의원 등 접촉한 듯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를 넘어 중도 진영까지 아우르는 '슈퍼 빅텐트'를 펼치겠다고 승부수를 띄웠다.

김 대표는 그동안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중도·야권 성향 인사들을 접촉해 왔다고 21일 김 대표 측을 포함한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빅텐트란 지향점이나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정치 세력들이 선거를 앞두고 초당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을 뜻한다.

김 대표의 '슈퍼 빅텐트' 구상이 구체적으로 외부 인제 영입을 뜻하는지, 후보·정당 간 연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이처럼 대상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목적은 어느 정도 드러난 듯 보인다.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신당론'에 맞서 중도 지대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는 해석이 많다.

김 대표의 빅텐트론은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 계까지도 총망라한 중도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본인이 직접 민주당의 소수 비명계를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면 위에서 거론되는 대상은 민주당내 대표적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한국 의회양향자 대표 정도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과 관련해 "합리적인 분에 대해서는 삼고초려 해서도 모셔야 할 분 아니겠나"라며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핵심 당직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상민 의원은 사실상 무의의했다"며 "추가로 접촉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더 있다"라고 했다. /연합뉴스

北정찰위성 발사 임박 속 美핵추진 항모 칼빈슨함 부산 입항

미국의 핵(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 기간을 하루 앞둔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칼빈슨함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부산 면바다에서 포착되기 시작해 9시10분께 육안으로 식별

될 만큼 항구 가까이 들어왔다. 미 해군 제1항모함대의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한국을 찾은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7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한 한미는 이날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행동화한다는 데 동의했다. 미 항모가 공개적으로 부산에 입항한 것은 지난 달 12일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기업 표창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